

축산부산물 제조기술 지역기업에 이전

전주시, '콩나물·미나리 순대 제조법'·'비빔밥 순대 제조법' 등 특허권 2건... 전통식품 대중화 이바지 기대

전주시가 전통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 개발한 축산부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해주기 시작했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18일 전주시청 부시장실에서 박순종 부시장과 유강열 연구원장, 관내 식품기업인 (주)원년미소전통식품 조재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부산물과 돈혈을 활용한 순대 제조기술 2건에 대한 특허권 양도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은 돼지부산물 및 돈혈을 활용한 '콩나물·미나리 순대의 제조방법'과 '비빔밥 순대의 제조방법' 등 특허권 2건으로, 차별화된 기술을 산업화함으로써

전통식품의 대중화와 기업 성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이 이처럼 기술이전에 나서게 된 것은 축산부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축산부산물의 위생적인 활용과 순대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에 대한 연구·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번 기술이전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화와 과학화, 영양학적, 건강기능성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돼 전통식품의 고급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축산부산물이 지역농산물 및 향토음식인 미나리와 비빔밥 소재를 접목한 가공제품으로 개발돼 전통식품

대중화를 앞당기고, 소비시장도 확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기술을 이전받은 (주)원년미소전통식품은 앞으로 전통식품인 파순대에 지역농산물과 향토음식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순대의 제조 및 유통, 판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재업 (주)원년미소전통식품 대표는 "기능성 강화 및 형태를 변화시켜 종래의 순대가 지닌 약점인 건강증진, 소비 용이성, 순대 특유의 이취를 보완한 기술이전으로 제품의 소비층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향후 식생활의 변화로 간편식 시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순대를 접목기 형태의 패키징을 적

용하여 즉석조리식품의 편의성을 증진시킨 간편식(HMR)의 연구개발과 기술교류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순종 시장은 "축산부산물의 단순 메뉴와 안전성을 개선하고, 조리방법을 표준화, 과학화하여 대중화된 제품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기존 전주의 타 브랜드와 동반성장 가능한 제품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향토식품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짜장순대 제조방법 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해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바 있다.

/인재홍 기자

새싹땅콩, 골다공증 개선·예방효과 '기대이상' 입증

농진청, '소아사포닌 성분 30배 증가' 확인

땅콩을 새싹으로 틱워 먹으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땅콩을 싹틔워 키운 새싹땅콩에 소아사포닌이 다량 함유돼 있음을 확인했다.

소아사포닌은 땅콩종자에 있는 크미라틴이나 새싹땅콩으로 재배 시 종자 대비 약 30배 이상이 증가하는데, 골다공증 개선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냈다. 새싹땅콩 추출물의 골다공증 개선

효능을 동물실험으로 검증한 결과 뼈 파괴는 약 3.5배 억제되고, 뼈 형성은 약 6.1배 촉진하는 이중 효능을 보였다.

특히, 새싹땅콩 추출물 중 뼈 생성 세포의 촉진 효능은 소아사포닌의 농도가 높을수록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사포닌 함량이 많은 국내 새싹땅콩용 종자로는 알이 크고 수확량과 재배 특성이 우수한 '신팔광' 품종이

적합하다. 싹 틱은 지 7일~10일 후, 길이는 약 15cm가 되는 시기에 수확하면 소아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소아사포닌의 골다공증 개선 효능 조성물 제조법'을 특허 출원했다. 2018년 출시를 목표로 새싹땅콩 추출물을 이용한 과립, 차(茶) 등의 가공식품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체와 함께 공동개발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2016년 고창군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산업체에 새싹땅콩 특허를 기술 이전했다. 이 산업체는 원료교 생산 및 가공 산업 등을

위해 지역 땅콩 재배농가와 50ha 규모를 계약해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식량과학원은 새싹땅콩을 고창군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해 6차산업 활성화와 지역민 소득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박기도 작물기초기반과장은 "새싹땅콩에 들어있는 소아사포닌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기대된다"며, "유효성분을 높일 수 있는 새싹땅콩 재배방법과 성분추출법을 표준화하면서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개발하도록 임상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홍 기자

바이오기업 프로티젠, 생진원 '패밀리기업'으로 지정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프로티젠은 바이오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지난 13일 전북지역에서는 4번째로 국내 유일의 바이오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패밀리기업'으로 지정됐다.

프로티젠은 인간 초유에 포함된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는 단백질 성분인 락토페린의 유도체를 효모 등에서 대량생산해 화장품용 천연방부제를 개발하는 연구와 대표적으로 쌀눈에 함유돼 있는 고혈압 및 수면장애 예방, 항스트레스, 인지능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가바 물질의 유산균 발

효를 통해 생산해 다양한 식품에 적용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

생명공학연구원 '상생협력, 동반성장, 기술혁신, 창업촉진'의 4대 기본전략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해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티젠은 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기업성장 로드맵 및 전략 개발, 개발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 분석 및 판로개척, 인증인허가, IP 전략 등 기업성장을 위한 핵심요소에 3년간 1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인재홍 기자

경진원, 예비창업자 위한 비즈니스 창업특강 실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18일 전주시 제품제작소에서 예비 창업자가 셀프 제작 교육을 듣고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개발하는 메이커 분야 비즈니스 창업특강을 실시했다.

전북시제품제작소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과 1인 1인 제조 장비를 이용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드는 메이커 문화 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구축한 공간이다.

경진원에서 전문 운영하는 전북시제품제작소는 기업의 시제품제작 지원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1인 1인 제조 장비 활용 창업아이템 선포제작 교육을 시 제작소 개소 이후부터 꾸준히 운영하

여 교육생의 성원에 힘입어 평일뿐 아니라 주말운영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비즈니스 특강은 도내에서 메이커로 성공 창업한 한교 오진욱 대표의 사업화 노하우 공유를 주제로, 1인 제조 장비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잘 팔리는 창업아이템 선정부터 1인 수익 구조 만들기과 마케팅 전략까지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북시제품제작소 메이커 분야 창업 특강은 메이커가 아니라도 메이커 분야에 접목해 창업할 예비 창업자와 관계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8월부터 정례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인재홍 기자

전북농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SI 등 경기불황속 적극 마케팅 농산물 판매확대 기여

전북농협이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 고창군지부가 그룹별 1위를 달성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1위를 달성한 전북농협은 지역 농·축협 조합원은 물론 농업인과 임직원들의 지극성을 증가시키고 연도말 도약적인 경영성과의 전망을 밝게 했다.

전북농협의 1위 달성은 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과 상호금융 등 전(全) 사업부문에 걸쳐 우수한 경영성으로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북농협은 올해 초부터 농가소득 연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조기

운 가운데 관련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축산물판매에 우수한 실적을 거뒀으며 연합마케팅사업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에 기여한 결과이다.

또한 지역 농·축협의 건전경영을 위해 상호금융의 성장과 서민금융 지원, 저원가성 예금을 적극 유치하고 특히 건전성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축협의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한 결과로 의미가 크다.

전북농협은 21일 종합업적추진전략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사업평가 분석 및 하반기 사업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연도말 평가에서 1위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짐 계획이다.

강태호 본부장은 "관내 법인·농축협 직원들의 일치단결된 힘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농협간 상생발전을 위한 시너지 활성화, 농·축협 균형발전을 위한 지도지원사업 강화, 농가소득 연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전북농협의 위상을 높이자"고 격려했다. /인재홍 기자



여경협 전북지회, 창립 18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8일 전주르민호텔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모범여성경제인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정원탁 전북중소기업청장과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기업지원유공자, 모범여성경제인 시상, 축하떡케팅 및 세계패버리뷰치기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서 회원확보와 센터확장으로 지평기반을 다졌다"며 "이제 도내 여성기업이 위대한 기업을 넘어 신뢰받는 여성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지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999년 7월 창립해 여성기업진흥지원센터 운영과 실천창업강좌, 여성성장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을 증진하고 여성경영인육성 리더십스쿨, 차세대 여성CEO 양성과정과 여성CEO MBA과정을 개최해 여성인재발굴과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재홍 기자

www.i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로 컴퓨터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국,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